

책과 예술과의 만남 : 장서표 그리고 예술제본

책은 마치 건축공간과도 같다... 각각의 페이지는 동시에 열리고 닫히는 벽... 그 표면과 재료는 책을 가두는데 비해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은 책을 해방시킨다...

1932년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시에 마티스가 그림으로 꾸민 시집의 발간에 대한 당시 언론의 한 기사이다.
(고종원 미술평론가, Art Book Making에서)

작년 겨울쯤 발행된 책 중 앤 패디먼이 쓴 'Ex Libris 서재 결혼 시키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책 서문에 저자가 한 말들이 참 인상적이다. "책은 선반 가운데가 내려 앉은 내 책꽂이들을 뻥뻥하게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로부터 내가 창조하려고 했던 그 전체이다" 또한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간다. 책들이 우리 서가에 또 창들에, 소파 밑에, 냉장고 위에 쌓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 라고 읊조리고 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책... 우리는 책을 통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 즉, 책을 읽는다는 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자신과 닮은꼴인 책... 그런 책을 내 분신과 같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 장서표와 예술제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 도서관문화 편집실(· 글 : 심효정* · 사진 : 박진우**, 심효정)

첫번째 만남 장서표

장서표란?

사람들은 유사 이래 자신이 소유한 특별한 물건 등에 자신만의 고유한 표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애정의 표시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고, 단순한 소모품일 수 없는 책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우리는 자신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책의 겉장이나 뒷장, 혹은 세로 면에 책을 구입한 날짜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나 도장, 그 책과 관련된 적은 분량의 글 등을 남기곤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귀한 책에 소유와 애정의 표시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 모든 애서가의 욕심이었다. '장서표(藏書票)'는 이러한 욕구와 실용의 차원에서 생겨난 '책 소유의 표식'으로서 시작했지만 그 고유의 예술성 때문에 책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애서가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유럽에서는 장서표가 성행한 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장서인이 발달하였다. 장서인은 책·그림·글씨 등의 소장자가 자기의 소유를 밝히기 위하여 찍는 인장을 말한다. 장서인을 찍는 목적은 소장자가 자기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때로는 자기파시나 교훈적인 목적으로 찍기도 한다. 인장의 재료로는 옥(玉)·돌·동·금·은 등의 금속, 상아·대나무·나무 등을 사용한다. 그 형태·인문(印文)·서체(書體) 등도 다양하며, 소유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서인이 서적의 내력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 shjcab@hitel.net, ** anto11@hitel.net

장서표는 책의 소유를 표시 하는 도장이 보다 더 예술적으로 가공되어 나타난 독립된 예술의 장르이다. 장서표는 장서가의 일종의 표시이거나 책의 장식에 쓰이는데, 책의 표지나 뒷면 또는 안 겉장에 붙인다. 그래서 장서표는 아름다움과 실용의 목적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문자와 그림이 조화롭게 결합된 것이 장서표의 중요한 예술적 특징인데, 주로 '판화'로 제작되며 내용과 형식이 각기 특색을 갖추고 있다.

장서표의 역사

서양의 장서표는 15세기 후반부터 평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귀족과 승려계급에게 애호되었으나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사업이 활발해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저변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는 서책에 직접 찍는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림을 이용한 초형인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어쩌면 동양의 장서인의 더 연조 깊은 장서표의 시조로 이야기 될 수도 있겠다.

중국에서는 근대 혁명기초에 중국의 대문호 노신의 신흥 목판화 운동에 동참한 이화, 양동 등의 판화가들이 판화로 된 장서표를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판화가가 즐겨 장서표를 작업하여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출판과 관련하여 각종 활동을 펴는 등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부터 장서인이 쓰였다고 추정하지만 조선 초기에 와서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서인은 13세기 고려 고종 때 '수기' 스님이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6)》에 찍어놓은 '해동사문 수기장본'이라고 하며, 조선 초기 세종조선 후기의 대사상가인 정약용이나 서화가이기도 한 추사 김정희는 낙관용과는 별도로 장서인에 활약한 남지나 정인지 등이 인장을 소장본에 찍어 사용했다고 한다.

개화 후 식민시대를 거치며 전통판화의 맥이 끊겨졌고 일본에 유학을 했던 서양화가 최영림 등에 의하여 근대 판화가 소개되었지만 웬일인지 장서표는 소개되지 않았거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1991년 중국 조선족 판화가 이수산이 가지고 온 장서표를 남궁산씨가 발굴하여 소개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장서표는 일반적으로 5-6cm 정도의 크기로 제작되지만 우표 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은 엽서 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반 판화와 큰 차이는 없지만 지켜야 할 몇 가지 격식이 있다.

장서표에는 라틴어 'EXLIBRIS' 라는 국제 공용의 표시가 삽입되는데 EX는 영어의 'from', LIBRIS는 'books, library' 로 '~에서(愛書) '~장서(藏書)의 뜻이며 영어권에서는 'Book Plate' 라고도 쓴다.

장서가 자신의 이름을 써넣는 것도 장서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 장서, 애서, 소장, 책사랑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주소나 서재명, 제작이나 소장 연대를 쓰기도 하고, 책의 내용이나 그와 관련된 시, 격언, 경구들을 적어 장서표의 의의를 더한다. 쓰는 사람에 따라 EX와 LIBRIS 사이에 '-' 을 삽입하기도 한다.

장서표의 형식과 내용

장서표는 주로 판화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장서표가 복수로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판, 석판, 동판, 세리그래픽 등의 판화기법과 현대적 옵셋 인쇄나 개인용 컴퓨터의 프린팅 등 복제가 가능하지만 하던 어느 매체라도 무방하지만, 판화로 제작된 장서표가 예술장서표로 더 애용되고 있으며 예술의 한 장르로서 정착되었다. 장서표의 제작은 일반 판화와 큰 차이는 없지만 크기나 격식 상 지켜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장서표의 제재가 되는 것은 인물, 물고기, 새, 곤충, 동물, 꽃, 풍경 등 각종의 이미지를 사용하며, 역사적인 고사나 신화, 전설, 민담 그리고 현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표현은 그 내용에 따라 구상과 추상의 방법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모양도 방형, 정방형, 원형, 삼각형 등 제한이 없다. 크기는 작은 것이 우표나 공중전화카드, 담배 갑 만한 것에서부터 큰 것은 엽서 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길이가 5센티미터에서 1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다.

장서표의 제작과 소통

장서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무 지우개나 책상 깔개 등의 고무판에 조각칼, 면도칼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거나 개인용 컴퓨터 혹은 일반복사기를 이용해서도 훌륭한 장서표를 만들 수 있다. 복수로 제작되기 때문에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서로 교환하여 감상하는 즐거움도 가질 수 있다.

장서가 스스로 장서표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거나, 보다 고도의 미감을 즐기기 위해선 전문 판화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된다. 이 경우 작가는 의뢰자의 사상이나 세계관, 직업, 취미 등을 두루 살피고 책의 종류나 소장한 연도, 장소 등을 포함해서 장서표를 구성하고 제작한다. 판화 장서표는 오리지널 판화이기도 하므로 예술품으로 감상 가치를 지니며 소장의 가치가 있다.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인쇄된 기성품 장서표를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기성품은 장서표를 사용할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채로 통용되는데, 일정한 여백에 장서 주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곁들여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국내에서는 미리 인쇄된 장서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유럽이나 미국, 홍콩, 일본 등지에서는 서점에서 저렴한 가격의 기성품 장서표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점에서 장서표를 서비스하거나, 출판사의 경우 자신이 발행하는 책의 내용에 맞게 제작해서 책에 끼워준다면 책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장서표의 독립성

장서표는 책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의를 잃고 말지만, 최근에는 책에 붙여지는 의미 있는 장식물이 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독립된 예술의 한 갈래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면 전시가 목적이 되거나, 수장 또는 수집되거나, 교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유럽의 모든 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에서는 장서표 애호가와 작가들에 의해 장서표협회가 만들어져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일본, 이탈리아, 대만 등지에서 대단위 세계 장서표 교류전을 열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에는 이미 20만 점의 장서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장서표의 국내 전시 현황

국내에서는 몇몇 판화가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존의 장서인과는 다른 장서표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1993년 11월에 '한국에서가클럽'이 주최하여 영풍문고 이벤트홀에서 30여 명의 국내 작가 작품과 일본의 장서표협회에서 소장하고 있던 각 나라의 장서표를 모아 '세계의 장서표' 전시회가 열

렸다. 또 미도파 갤러리 주최로 '장서표와 작은판화전'이라는 전시가 다음해에 있었고 1995년 봄, 인사동에 있는 현화랑에서 '남궁산 장서표 개인전'이 열렸으며 그해 제1회 <판화미술제>에 초대 출품됐다. 그 후 2001년 인사동의 관훈미술관에서 열린 '장서표전'에 80여 명의 판화가들이 장서표를 출품하였다. 그리고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궁산 장서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참고문헌>

고충환. 1998. "Art Book Making에 관하여". [cited 2002.5.10.]. <http://www.paintseoul.com/Report-21c-11.htm>.
 구리닷컴. 2000. "장서표를(Ex Libris)를 아십니까?" [cited 2002.5.10.]. <http://www.kungree.com/gallery/bg3.htm>.
 동산방. 2002. 『남궁산 목판화 장서표』. 서울 : 동산방.
 박대현 편저. 1999.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서울 : 열화당.
 Ohmynews. 2002. 판화가 남궁산의 <목판화 장서표전>을 가다. 5월 10일.

장서표에 대해 조사하던 중 마침 판화가 남궁산씨가 목판화 장서표전을 열었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서울 견지동 어느 한 모퉁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동산방 화랑... 깔끔하고 단아한 그곳에서 남궁산씨의 장서표전을 볼 수 있었다. 남궁산씨는 판화의 대중화를 위해 장서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중들에겐 아직 '장서표'라는 이름조차 생소하겠지만 책에 장서표가 부착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며 동시에 책을 더 가까이 하도록 부추기는 좋은 매개물로서 독서문화의 새로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도서관에서도 장서표를 대중화하여 책 읽는 재미, 도서관에 오는 재미, 책을 아끼는 재미를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그런 일을 자신이 했으면 한다는 말을 건넸다.



<남궁산씨 장서표 전시회장 모습>

판화가 남궁산씨의 두 번째 여는 '목판화 장서표' 전



남궁산씨의 전시회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종로구 견지동 동산방화랑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책을 가까이 하는 예술인, 문인, 학자, 스님 등 작가, 지인 104명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작업과 사상, 세계관, 취미, 성품 등을 고려하여 장서표를 만들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작업한 장서표는 출판작과 미술품작을 합쳐 300여점 정도 이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도정일 대표의 장서표
 '책에서 피어나는 꽃'은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이다.



소설가 이윤기의 장서표
 <그리스 로마신화>역자이자 신화연구자이기에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半人半獸)가 새겨져 있다.

두번째 만남 **예술제본****예술제본(Reliure)이란?**

영월책박물관 관장인 박대헌씨가 1999년 펴낸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우리는 처음 책에 다가갈 때,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소유하기에 앞서 먼저 두 눈을 자극하는 이미지 앞에 놓이게 된다. 정말 그렇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이 있다. 겉표지가 좋지 않으면 내용이야 어떻든 손이 쉽게 가지 않으므로.. 그래서 중세유럽에서는 왕립도서관 소속인 '틀리외르(Relieur, 붙어-제본가)'들이 책의 겉표지를 따로 꾸몄다고 한다. 틀리외르가 만든 화려하고 장중한 책들은 귀족들의 서재에 꽃혀 그들의 부와 명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고 한다. 잘 만들어진 한 권의 책은 그 자체로 독립된 예술품인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 경제, 예술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박대헌씨가 펴낸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과 같은 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장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긴하지만, 예술제본이 유럽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인지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술제본은 인쇄된 책이나 낱장의 기록물, 예술작품 등을 엮는 과정 전반에 걸친 아름답고 견고한 책 치레를 의미하는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다. 과정의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본래의 작품가치를 높여주는 예술적 승화와 더불어 보존성, 역사성의 부여로 고귀한 문화유산으로 남기고자 함이 그 본연의 목적이다.

프랑스어에서 제본을 뜻하는 말인 틀리외르 reliure의 어원은 '읽다' 라는 뜻의 lire로 시작된다. 즉 lire(읽다) → relire(다시 읽다) → relier(제본을 하다) → reliure의 과정을 볼 때 책을 제본한다는 일의 출발은 책을 읽고 사랑한다는 일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예술제본은 책을 쓴 이와(저자) 책을 엮은이(편집자)와 삽화가, 인쇄를 맡은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며 공력을 들인 그 한 권의 책과 함께 공감하는 '따르또같이'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의 예술제본의 시작은 신, 왕족, 귀족 등의 특수층에서부터였던 반면, 우리의 예술제본은 신앙인, 디자이너, 문인, 학생, 주부, 책을 사랑하는 일반인 등을 통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제본의 역사

그리스·로마시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직접 글을 쓰던 그리스·로마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네모난 모양의 책을 만들었다. 낱장의 양피지에 글을 쓰고 그 낱장을 연결하여 묶는 것이 이 시기의 제본이었다.

중세(5, 6~15C) : 사원이 예술제본의 산실이었고, 제본가는 수도사였다.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로 장정이나 제본에 금, 은, 상아, 에메랄드, 질 좋은 직물 등 최고급 재료를 써서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중세 말 인쇄술의 발달은 제본의 발달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르네상스(16C) :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에 힘입어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던 프랑스에서는 많은 왕들의 후원 아래 왕립도서관 소속의 제본가가 활약하게 된다. 앙리 2세, 앙리 4세, 루이 12세 등이 후원하여 풍요로운 세기를 만난다.

17C~18C : 루이 13, 14세, 니콜레옹 등의 후원은 예술제본을 왕성하게 하였다. 17C에는 약간 어두운 장식과 작은 점으로 금박을 하는 장식이 계속되다가 18C에는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을 하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으로 혁명당원의 모자나 창, 혁명군의 주검 등이 표지에 등장,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19C : 19C 초에는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아 무거운 느낌의 장식이 주조를 이룬다.

20C : 19C 중반부터는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기계화된 제본을 시작한다. 화학 처리된 풀, 종이, 천, 가죽 등이 새롭고 편리한 재료로 등장하며 대량생산의 시대를 맞는다. 결국 이 시기부터 경제적이고 단순화된 대중 제본과 특정한 보호가 필요한 책들에 대한 예술제본 고수라는 이원화된 공존시대가 지속된다.

제본의 종류

판지제본 : 기존에 일반제본소에서도 제작되던 ‘각 장정’이다. 두 개의 표지 판지와 책 등 넓이의 판지, 세 부분으로 나뉘며, 책 등과 표지를 잇는 부분은 길게 판 홈이 된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제본이며 메모지, 일기장 등을 위한 선물로도 적합하다.

선제본 : 길이가 긴 책에 어울리며, 매우 자유롭고 느슨한 느낌의 제본이다. 미리 계산을 해서 뚫어놓은 책의 구멍과 책 등의 자리를 맞춘 후 구멍을 뚫어 한꺼번에 꿰매준다.

재료 및 도구

예술제본을 위한 재료의 선택은 책의 수명을 고려한데서 출발한다. 입착기, 종이를 자르는 재단기, 책의 틀을 잡아주는 기계, 꿰매기 위한 수틀 등이 기본적인 도구이다.

가죽 :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보수·복원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재료가 바로 가죽이다. 주로 모로코나 파키스탄,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가죽을 방수처리하지 않은 제본용 가죽을 사용한다.

종이 : 16C~20C까지의 시대의 양상, 문화·예술의 발전상이 종이의 특징을 규정짓는다. 마블지(marbre)는 현재까지 개인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프랑스 전통제본을 위해 꼭 필요한 종이다. 색색의 얇은 한지는 배접을 위해서라도 좋은 재료이며 앞으로 예술제본과의 접목을 위해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곁 표지 장식에 쓰이는 종이, 판지 등, 한 권의 책에 직접 사용되는 종이만도 10여 가지에 이른다.

이밖에도 천, 나무, 가공한 금속 등 새로운 재료의 개발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권의 전통제본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수는 무려 40~50여 가지에 이르며 한국에서도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예술제본의 수요 공급자

유럽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왕족, 성직자, 귀족들, 애서가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제본은 오늘날에 이르러 자선민의 책이나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그 수요자가 되고 있다. 출판인, 성경책, 성경필사본, 작품활동을 하는 예술가, 문인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 1,000여명의 예술제본가들은 아틀리에를 운영하거나, 프랑스 전역에서 산재해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복원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전통제본의 형식을 지키며 완벽한 기술을 요하는 장인의 발끝에 힘을 써오다가 1990년대 초부터 예술제본이 더 이상 특정한 이들을 위한 소유물이기를 거부하며 대중화 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제 예술제본가는 예술의 한 획을 그으며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책의 새로운 수호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신혜선. 1999. “책 한권에 : 예술제본가”. [cited 2002.5.10.]. <http://www.lg.co.kr/h_lg/tree/199904/s_0420.html>.
- 심이선. 1998. “예술제본가”. [cited 2002.5.10.]. <http://www.migil.co.kr/people/old/index9908_1_down.htm>.
- 앤패디먼 저. 정영목 옮김. 2001. 『서재 결혼 시키기』. 서울 : 지호.

예술제본에 관한 전시회도 마침 열리고 있어 찾아가 보았다. 서울 신사동 도산공원 뒤쪽의 조금은 한산한 거리에 위치한 아티그램... 현대적이면서도 이색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 곳에서 백순덕씨의 예술제본 전시회를 볼 수 있었다. 백순덕씨는 책 표지에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틀리외르가 되어 한국에 돌아왔다. 백씨는 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책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장정을 해야 비로소 빛이 난다고 말한다. 또한 책을 그 나라의 문화요, 수준이라고 말한다. 책은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을 오래 보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그러려면 책의 겉표지가 중요한 것이다. 책은 글쓴이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 있는 것인데, 정말 좋은책... 그리고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은 책이 질 나쁜 종이와 잘못된 제본으로 인하여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책의 소중함을 전달하였다.



〈백순덕씨 예술제본 전시회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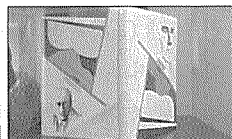
예술제본가 백순덕씨의 첫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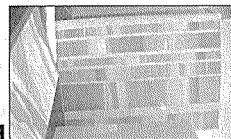
백순덕씨의 이번 전시회는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서울신사동 아티그램 화랑에서 열렸다. 백씨의 작업실 이름이기도 하며 수많은 앞장과 뒷장으로 이루어진 한권의 책을 만드는일의 총체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이번 전시회의 이름은 〈앞장과 뒷장 Recto-Verso 展〉으로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특히 프랑스 체류시 만든 120여 권의 책과 이곳에서 주문제작 된 성경, 성서필사본, 문학류 등의 책, 또 학생들의 예술제본 교육을 위해 만든 책 등 200여 권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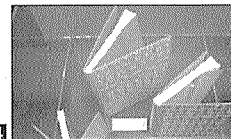
11



22



33



44

- 11 La Douceur de Vivre 네팔 종이 위에 파스텔화, 100×145 mm 22 Maurice Ravel le Basque Georges Pialoux 저. 흰 염소 가죽과 Canson 지를 이용. 음악적 요소를 이루는 무늬와 Ravel의 초상을 로트링팬으로 표현. 185×280 mm 33 정병규 북디자인 생각의 바다 발행. 버팔로 가죽을 표지 전체에 색은 다음 일정한 넓이로 파내고 종이를 붙였다. 214×300 mm 44 열화당 발행. 소가죽(BOX)을 사용. 186×256 mm